

AUTHOR 신복윤 (Bock Eyun Shin)

TITLE 칼빈의 윤리관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36 no.3 (Autumn, 1970): 44-53

적 인물들이 전위신학의 텐트속에서 「신학적 쇼」를 연출하며 혹은 그것을 관람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지금 텐트속에서 진행중인 「신학적 쇼」와는 아랑곳 없이 텐트 밖의 평신도들과 불신자들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참다 못해 「지금은 기독교 후시대이다」 혹은 「기독교는 그 종말에 도달했다」고 고향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혹암의 세력이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듯 하지만 그 혹암의 세력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삼일후에 부활한 생명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신의 심판은 「전위신학」의 텐트속에서 「신학적 쇼」를 즐기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 위

에 있으며 결코 기독교 자체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기독교를 수호하며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한·칼빈의 신앙과 사상을 따라 신의 영광의 미래로 전진하기를 염원하는 우리 개혁파 신학은 오랫동안 유명무실 했던 그 과거에서 깨어나서 「신앙의 최전방」에 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신앙의 최전방」에서서 역사적 상대주의, 관계신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와 생명을 내걸고 대결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최전방」에서의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백마를 타고 우리앞에 가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서 「기독교 백마부대」의 대원으로서 용감하게 싸우기만 한다면.....(제시류 6장 2절)

칼빈의 율리관

신 북 운

I. 서론	IV. 칼빈의 율리관과 경제관
II. 기초	V. 결론
III. 하나님의 율법	

I. 서론

칼빈(1509—1564)은 철학적 의미에서는 율리체계가 없다. 칼빈은 철학자들의 냉담한 이론을 공박하면서 “철학자들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도덕적으로 살도록 권장하는 것은 단순히 본성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¹⁾. 칼빈은 예수님처럼 도덕적인 이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둔다. 그러나 칼빈에게는 윤리가 있으며 그 윤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확신에 의존되어 있다. 그것은 힘있는 윤리이며 우세하고 추진력있는 윤리인 것이다. 칼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데 불명료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 칼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그 자신에게나 그가 말로나 글로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나 이 도덕적 확신이 그의 의무라는 점에서는 결코 흔들려 본 적이 없다. 비록 수고와 고통이 있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지지되어야 한다. 칼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공의를 세우기 위한 천상투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검사(檢事)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느꼈다.

칼빈의 주장이 도덕적인 면에서 강력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에게와 제네바시민에게 부여한 도덕적인 훈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성경이외의 어떤 의(義)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자원의 법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개의 율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1)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6:4 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칼빈의 윤리관

칼빈은 인간의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웃을 올바르게 대하는 데 관해서 건전한 상식을 많이 말했지만, 최고선(summum bonum)이 인격을 풍요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과 이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칼빈은 십계명 속에서 도덕적인 생활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레위기에서 나타난 나머지 금지명령이나 사실상 성경의 모든 도덕적 교훈들도 십계명의 뜻을 해석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탐비들에 의해 의욕되어지고 부패되어진 도덕적 율법을 원래의 순결한 상태로 회복시키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교리는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지지되었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다.

개혁주의 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세대를 위해 모세의 율법안에서 주셨던, 오래된 교리의 참다운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온 뜻을 완전한 공의로 나타내는 무오한 법칙이며 모든 특별한 율법들은 그 안에 다 포함된다. 그래서 도덕의 총화는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설교나, 주석이나, 책이나, 편지에서 참다운 교리의 추종자가 만약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다. 이런 논술들과 그가 추천한 법률로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실제적인 도덕문제에 관해 칼빈의 견해를 찾아볼 수 있다.

II. 기 초 (Foundation)

요한 칼빈의 윤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들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자.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도록 하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시도록 하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생애의 모든 분야가 우리들의 유일한 법칙 목표인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게 하자.”²⁾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목상하며

2) Inst., 3:7:1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 것이다”³⁾. 칼빈은 계속해서 말한다. “사람은 자신의 전체 능력을 주님을 섬기는 데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첫 단계로 자기 자신을 떠나야 된다……기독교 철학은 이성이 성령에 양보하며 복종하는 것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고 다스리는 것을 듣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그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은 거의 잊어버리고 우리들 자신의 관심사는 확실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충성스럽게 우리들의 열심을 다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관심사에서부터 떠나라고 명할 때는 단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소유욕과 권세욕과 사람에 대한 호의를 삭제해 버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야망을 뿌리채 뽑고 인간의 영광과 다른 비밀장식을 위한 모든 간청을 마음속에서부터 뿌리채 뽑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확실히 마음이 그렇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으로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처리 해야만 한다고 느낀다. 칼빈은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한 관심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전심으로 구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치료약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들을 구하여야 한다. 율법의 두 돌비에 근거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본성을 버리고 우리들의 이성과 의지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는 우리 생애와 모든 행동을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세부분으로 제한했다”⁵⁾고 말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난 광채를 볼 수 있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데서 명백히 나타난다⁶⁾.

이 열정적인 초기 글에서 칼빈은 인간이 탁월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대항해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불법적으로 배은망덕한 인간의 행위를

3) Ibid., 3:7:1

4) Ibid., 3:7:1

5) Titus 2:11-14

6) Preface to Olivetan's New Testament, in Calvin: Commentaries, ed. by Joseph Haroutunian and Louise P. Smith, 1958, p.58

말했다. 즉 타락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며 율법과 선지자를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자인 중보자를 보내주신 분께 배은망덕을 했다고 말했다⁷⁾.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할 수 있는 선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들을 다시 사시기 위해 팔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포로일 때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다⁸⁾.” 그런고로 칼빈의 윤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은 역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것이다. 기독교자의 생활의 근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⁹⁾. 그런고로 기독교자의 생활은 “본성에 따른다”는 스토익(stoic)주의 생활이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화해의 결과이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¹⁰⁾.

III. 하나님의 율법

칼빈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용어는 (a) 모세의 전체종교¹¹⁾, (b) 선택된 백성에게 도덕적인 법으로써 특별히 계시하신 것, 즉 주로 십계명과 예수님의 개요;¹²⁾ (c) 시민법이나 형사법이나 의례적인 법의 여러가지 본문들¹³⁾, 이것들 가운데 도덕적인 법, 즉 의의 영원하고도 참다운 법칙은 가장 중요하다¹⁴⁾. 그것은 문맥가운데서 세가지 용법으로 나타난다¹⁵⁾. 칼빈에 있어서 그 법의 적극적인 평가는 제3의 용법을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칼빈은 습관적으로 법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한에서만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¹⁶⁾.

7) Ibid., p. 66

8) Ibid., p. 69

9) Inst., 3:6:3

10) Ibid., 3:7:2

11) Inst., 2:7:1

12) Ibid., 1:8

13) Ibid., 4:20:14-16; Comm. Harmony Four Books of Moses; cf. Decalogue “Supplements”

14) Ibid., 4:20:15

15) Ibid., 2:7:6-15

16) cf. Comm. on John 5:38; Acts 13:39; Rom. 10:15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의 총화라는 의미에서 칼빈의 후자에 대한 취급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율법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격을 알게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과한 요구를 알게되었다¹⁷⁾.

그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앞과 그의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의무를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어디에서나 우리들을 충동하는 마음의 변덕에 따라서 행동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존함으로써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때에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나 그는 사악함을 미워하신다¹⁸⁾”고 말했다. 율법에 관해서 간추리면 사람의 임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빛을 찾는 것이며, 그것의 참다운 근거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위대한 계명에 요약된 율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 주어진 이 유명한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 용법은 율법에 관한 칼빈의 교훈중 주요한 것이다. 그는 율법의 주심을 하나님의 은총의 한 행동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현과 축복하심으로 생각했다. 칼빈은 신실한 사람들의 안내를 위해 성경적인 율법의 내용을 힘들여 설명했다¹⁹⁾.

“율법의 세계용법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더욱 더 밀접히 그것의 정당한 목적과 관계된 것으로서 성령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동하시고 다스리시는 충실한 사람들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비록 율법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놓았다 하더라도, 즉 그들이 비록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고조되고 활력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서부터 이중적인 유익을 얻게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위

17) Inst. 2:8:1, 4, 51

18) Inst. 2:8:2 The purpose of the fifth Commandment is that honor ought to be paid to those to whom God has assigned it... that it is right and pleasing to God for us to honor those on whom he has bestowed some excellence... The intent of the First Commandment is that God alone be worshiped(cf. Ex. 20:2-3; Deut. 6:4-5). Therefore the substance of the precept will be that true piety-namely, the worship of his divinity-is pleasing to God; and he abominates impiety (2:8:8)

19) Edward Leroy Long, Jr., A Survey of Christian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 83

대한 진리와, 그들이 추종하기를 소원하고 이 지식 안에서 확신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주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종이 계속해서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자기자신을 그 뜻에 적응되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중 아무도 그 자신을 이와같은 필요성에서 면제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매일 매일의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의 순수한 지식을 개발하지 않아도 필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훈뿐만 아니라 권고도 필요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좋은 율법에서부터 한층 더한 유익을 인출해 내게된다. 그는 율법을 자주 묵상함으로써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며 죄를 신속히 짓는 길에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될것이다”²⁰⁾.

그것은 창조적인 것이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이고 관례적이며 유익한 안내가 될뿐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까지 알고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한 생활을 위한 안내도 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의 첫째 용법과 둘째 용법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생각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지 양면에 공헌하게 된다²¹⁾. 율법의 첫째용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타락을 확신하고 율법이 설명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살게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첫째로 우리들의 무력과, 둘째로 율법에 반영된 우리들의 부정과, 마지막으로 양쪽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게된다²²⁾.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회개하도록 하는 선생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율법은 둘째 의미에 있어서도 그들을 위해 작용한다. 그들은 불순종에서부터 율법으로 흐르는 령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을 억제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원망하고, 율법이 나타내는 신의 권위에 반항하지만, 그렇더라도 악은 율법의 이 기능에 의해서 사회적인 질서 가운데서 제재를 받는다. (중략)

IV. 칼빈의 윤리관과 경제관

칼빈의 제네바는 상업도시였다. 의류, 피혁류, 보석, 시계, 서적 등이 생산되었다. 상업이 성행하고 은행가(銀行家)들이 있었다. 돈은 이자를 가산해서 빌리고 또 빌려주고 했다. 이 모든것이 민중들의 생활수단이었고 또한 고리대

20) Inst., 2:7:12

21) Ibid., 2:7:25

22) Ibid., 2:7:7

금과 착취의 문제를 낳게 했다. 칼빈이 교회를 맡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이 문제들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후로 시민들의 생활과 고용을 증대시킴과 가난을 방지하여서 그 도시의 일반적인 번영을 가져왔지만, 수반되는 악도 가져왔다. 이 목적을 위해 물가는 고정되었고 임금과 노동시간도 고정되었다. 칼빈은 지도원리로서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공중의 복지와 질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칼빈의 윤리관을 이해하여야 한다. 칼빈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찾아낸다²³⁾. 칼빈에 의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고리대금과 그것의 모든 악용을 정죄한다. 그런고로 칼빈은 이자 받는 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5퍼센트로 제한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은 이웃을 돕는 견지에서 이자없이 돈을 빌려주는 가치를 강력하게 강조한다. 그러한 자비로운 대여(貸與)는 신앙의 확실한 표적이다. 여기에서부터 성경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구제하는 견지에서 주어질 때 이자받는 것을 엄히 정죄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은 이자없이 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적은 임금과 사람의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보수에 대한 잦은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칼빈은 봉급계약을 천거한다. 그는 절단적인 계약과 법정에서의 중재까지도 추천한다. 칼빈에 의하면 봉급은 우리들의 생활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튼튼한 표시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를 위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중재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기르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봉급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공상에 따라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봉급은 고용주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노동자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두사람 모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두사람 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것으로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정당한 봉급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봉급의 정확한 양은 동참자들이(고용주나 피고용인이나)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얻은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책임을 질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 질 수 있다.

우리들은 봉급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칼빈의 공헌이 대단히 중요하

23)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 By Paul T. Fuhrmann, Virginia: John Knox Press, 1964, p. 56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당한 봉급에 관해 토론함에 있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가정적인 자연법칙의 표준을 정하기를 원하지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수로 봉급을 생각 할 때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함으로, 그 문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조명을 받도록 했다. 그러므로 봉급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만 또는 양적인 기준으로만 결정되어 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봉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노동자들의 새로운 품위를 생각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생각되어야만 한다.

칼빈은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노동과 노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생활을 위해 마련하신 일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행위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노동이 올바르게 성취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에서 뜻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서의 섭리가 인간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수행된다는 신적인 행위로서 자신을 참가시켜야 한다. 인간의 휴식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가치가 없다. 인간에게 휴식이 제정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들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에서부터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인간이 그 자신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지상의 목표를 부여하시게 된다. 인간은 일하도록 창조되었다. 칼빈에게는 노동은 신적인 직업이요 노동은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²⁴⁾. 여기에서 인간은 비록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 필요가 없을찌라도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는, 인간은 일함으로 그의 임무를 완성시킨다. 칼빈주의는 노동에 종교적인 성격을 부여한 첫 기독교윤리이다²⁵⁾.

칼빈은 노동과 기독교생활을 엄격하게 연결시켰다. 칼빈은 복음이 노동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이와같이 칼빈은 인간노동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이전엔 결코 없었던 새로운 가치로 부여했다²⁶⁾.

칼빈에 의하면-상업은 노동의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환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조화된 사회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물질

을 교환하는 것은 사회구성 요소들의 영적인 교제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상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 상업은 마땅히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고 인간의 존재를 기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하기 위해 상업은 항상 이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신적인 목적에서부터 이탈될 때 상업은 급속도로 그것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이다. 기만과 부정적은 경제관계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것들은 사람들과 단체를 분리시키고 교환이나 생활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질서를 붕괴시킨다.

칼빈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식으로 번영을 말할찌라도 하나님의 불만의 표식으로써 가난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는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동등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밑에서의 재산과 이익과 노동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그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한 무슨 유익이든지 그들이 차례대로 서로 분배한다는 원리밑에서 그리스도의 사회에 모여드는 것이라고 말할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은총의 다양성을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하는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것도 아니다(행 4:32).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머리 되신다는 참다운 확신 가운데서 형제의 사랑으로 결속 되어진다면, 그들은 서로 그들의 유익을 분배할 수 밖에 없다"²⁷⁾.

결론으로 우리들은 뚜렷한 방법으로 그의 경제관과 사회적인 사상을 요약해 놓은 칼빈의 웅장한 글을 인용해 보자.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의도로 세상적인 사물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목적과 함께 첫 출발을 해야만 한다. 그것들을 얻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그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용도는 무엇인가?"

첫째 문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물건들을 탐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들은 인내로 참아야만 한다. 만약 우리들이 풍부하면 우리들의 사랑과 신뢰를 재산에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신하게만 생각하신다면, 인내든지 그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보다도 더욱 가치있는 것

24) Inst. 3:10:6

25)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tr. by Paul T. Fuhrmann, 1964, p. 59

26) Ibid., p. 47

27) Inst. 4:1:3

으로 소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는 우리들이 소득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생계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이익을 정당한 보수로 받아야만 한다. 팔고사는 데 있어서 기만과 간책과 거짓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같은 신실함과 충성으로써 우리들의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하도록 하자.

마지막 문제는 적게 가진 자도 하나님앞에 감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또한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탐식과 무절제로 혹은 낭비나 쓸데없는 것으로, 교만이나 허영 때문에 그의 재산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부자는 그 자신을 위해서 적절하게 그의 재산을 사용할 것이며 그 재산이 그 자신을 이웃 가운데서 살수있게 해주고 이웃을 고통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노동력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고 인식해야 한다.

칼빈의 사회윤리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항상 행동에 있어서나 사상에 있어서 현대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적인 윤리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사회적 개념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며 또한 우리들을 세대의 새로운 현실과 직면하게 한다.

V. 결 론

하나님은 지구의 대부분에 있어서 사회를 변혁시키며 역사과정을 변경시킨 칼빈과 같은 사람을 그의 교회에 흔히 허락하지 않았다. 16세기에 위대함을 떨쳤던 여러 모습들 가운데서 칼빈만큼 오래 지속된 유산을 남겨놓은 사람이 없다. 제베바에서 그는 튼튼하게 기초석을 놓음으로 그 위에 튼튼한 도덕적 구조가 세워질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일을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아직도 굳건히 서 있으며 파괴되지 않았다. 그것은 영속하는 구조이며 엄격한 미의 종류로서 전혀 결합이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가 원한다면 모든 비난을 칼빈에게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개혁자가 신앙과 사상에 감명을 줌으로 이 지구상의 수백만 거주자에게 아직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역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큰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덕행은 4세기가 지난 오늘날 사회질서 가운데서 아직도 영향을 끼치는 도덕적 규약으로 구체화 되어갔다.

다니엘서 9:24~27 해석

간 하 배

이 학설은 몇가지 점에서 성경에 반대된다.

첫째로, 이때보다 7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학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거했다고 말한다(학 1:2~4).

이사야도 또한 바벨론 왕인 고레스왕 때에 예루살렘성이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했다(사 45:1, 13장, 44:26~28). 에스라서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성은 느헤미야의 귀환전에 이미 중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스 4:12, 9:9).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예루살렘성이 주전 445년 이전에 재건되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설은 요한 칼빈, 클리포드 카일, 루폴드, 에드워드 영 등이 주장한 학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공포된 해를 포로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린 고레스 원년(주전 538년)이라고 간주한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포로생활을 하고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해는 고레스왕 원년이다. 단 1:21에 있는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상한 말이다. 단 10:1에 "바사왕 고레스 삼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라는 말씀을 보아서, 사실상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 이후에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니엘서 1장에서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하였는가? 이것은 고레스왕 원년이 포로생활이 끝난 해이고, 포로들이 귀환하도록 허락받은 해이기 때문이다. 고레스왕 원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운을 받은 유명한 전환의 해이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해이다. 그것은 주전 538년 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출발점은 고레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중대한 사건이요, 유대민족 역사의 새로운 사건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로잡힌 백성이요, 추방되었던 민족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던 자 혹은 새로운 이웃들이 병합함으로써 인해서 허물어졌다. "말씀이 공포된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취되었다(스 1:1~4). 이 작정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성경의 영감으로된